

한일 근대사를 다시 본다 -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¹⁾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나타난 세계사적 특징

질문 왜 근대일본은 제국주의로 치달아 한국을 비롯한 이웃의 여러 나라에 대한 침략을 거듭하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지요.

나카츠카 아키라(中塚 明) 일본은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빨리 통일국민국가를 수립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외교·군사 분야에서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인 조선, 또는 중국의 국민국가 수립이 상대적으로 늦어진 것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이지유신으로부터 불과 이십 몇 년 만에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만, 그 무렵까지 일본 자본주의 발달은 대단히 미숙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명을 활용하는 형태, 즉 근대적인 병원을 건설한다거나 학교를 창설하기도 하면서 세력을 침투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단히 난폭한 방법으로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875년 강화도사건²⁾ 등이 단적인 예입니다만,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행사하여 개국을 강요하는 난폭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강화도사건에 이어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³⁾를 비롯한 일련의 조약도 막부 말기에 일본이 구미 여러 나라로부터 강요당했던 불평등 조약과 비교해 봐도 일본이 조선에 강요했던 조약이 훨씬 더 가혹한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청일전쟁 당시 일본 외무성이 편찬한 『통상회찬(通商彙纂)』에도 나오지만, 자본주의가 미숙했기 때문에 사기적인 상행위를 하고 있던 일본 상인에 대해 주의를 준 기사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냥 상자 위쪽에는 2-3개 진짜를 늘어놓고, 그 아래에는 회묵(灰墨)에 풀을 섞어서 나무 조각 한쪽 끝에 칠한 성냥처럼 생긴 것을 놓고, 밑바닥에는 나무 조

1) 『세카이(世界)』 제 696호, 2001년 12월호 별책에 실린 내용으로, 일본측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와 한국측 강만길 교수가 대담자로 참여했다.

2) 강화도사건이란, 1875년 9월에 일본 군함 운요호(雲揚號)가 강화도를 불법 침입하자 강화도를 수비하는 조선군대가 발포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 최근, 일본에서 이 강화도사건이 일본 군부에 의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었으며, 사건 자체가 당초부터 조직적으로 날조됨으로써 정확한 진상이 오랜 기간 은폐되어 왔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 1876년에 朝鮮王朝가 日本과 사이에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한국에서는 보통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 또는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이라고 부른다.

각만 놓은 것을 팔았습니다. 정도가 심한 예입니다만 이렇게 난폭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상회찬』메이지 27년 10월호) 이런 상황 위에 조선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한 침략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기도 해서 일본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반일적인 움직임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한 조선침략이 진행되는 것은 메이지 일본정부가 구미 자본주의 여러 나라의 시장개척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의식적으로 구미 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특히 러시아와 영국 사이의 대립이 있었으며, 일본은 그 같은 대립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러일전쟁은 영국과 미국의 자금에 의해 전쟁이 가능했던 사정도 있었으며, 일본은 그들 여러 나라 이익을 대변하면서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조선침략을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강만길 지금 한국 사학계는 당시 조선이 왜 근대국가, 민족국가 건설에 실패했는가라는 원인에 대해 ‘일본의 침략’ 외에는 그다지 지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며,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그 점은 자세하게 실려 있지 않지요. 중세(中世)까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중심에 서 있었던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이었습니다. 조선은 그런 중국의 바로 옆에 있었으며, 일본은 훨씬 더 주변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봐도 일본 열도 쪽이 조선 반도보다 서양의 배가 닿는 기회가 많아 서양 근대문화 수용에 대단히 유리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경우 서양인이 표류해 오는 곳이 기껏해야 제주도 정도였습니다. 또 일본에는 근대초기부터 탈아론(脫亞論)⁴⁾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선에는 탈아론이 없었으며, 중국에도 없습니다. 중국은 ‘중체서용(中體西用)’, 조선은 ‘동도서기(東道西器)’라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조선은 중세 동양문화의 중심부에 가까워 동양문화를 가볍게 버릴 수 없었던 것에 비해, 일본은 동양 중세 문화권의 주변이었기 때문에 탈아론을 제기하기 쉬웠던 것이지요. 일본은 서양제국주의로부터 피해를 입는 한편 그 방식을 배우고 모방하게 되고, 마침내 탈아론이 제국주의를 모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조선침략과 중국침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말 영국과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조선반도를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김새를 보여 그런 러시아를 막는 역할을 미국과 영국이 일본에게 맡기고자 뒤에서 밀었습니다. 그래서 러일전쟁에서 실제로 싸운 나라는 일본이었지만 전비(戰費)의 절반가량은 미국과 영국이 부담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대륙 세력이 태평양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미국을 대신해서 방위하여 그 이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거 역사를 볼 때 일본 근대사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서양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근대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측면이며, 다른 한 면은 일본이 조선과 중국에 대해 제

4) 탈아론이란, 근대일본이 아시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思考를 말하는 것으로,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1885년 3월 16일자 『시사신보(時事新報)』에 「탈아론」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게재함으로써 유명해졌다. 탈아론은 일본인들의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대한 멸시관을 조장하고,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주의적인 침략을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나카츠카 저도 일본의 근대국가로서의 독립, 그리고 제국주의국가로의 발전은 조선 및 중국에 대한 침략과 표리일체(表裏一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일본 내에는 지금도 청일·러일 전쟁을 ‘성공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시다만⁵⁾, 이 ‘성공’은 동시에 커다란 모순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사실, 즉 이웃나라이자 거기에 수 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는 문명수준이 대단히 높은 나라를 통째로 식민지로 만든 것은 세계사에 그 유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민족의 저항이 대단히 격렬했으며, 민족운동이 격렬해짐에 따라 일본을 지지하고 있던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모순이 발생하고, 식민지와의 모순, 제국주의국가 사이의 모순이 마침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대일본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 현재 드러나고 있는 한국·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왜 일본은 근대국가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타이완, 오키나와를 포함하여 주변 여러 나라를 침략하게 되었습니까?

강만길 서양의 침략에 맞서 일본이 독립을 지키고 근대국가로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을 근대국가로 만드는 기회로 삼으려는 사상·사고방식이 당시 일본에는 대단히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일은 그 시대 사람들 특히 일본인들에게는 서양도 다 하는 것이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카츠카 메이지(明治) 초기에 정한론(征韓論)⁶⁾ 등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그 위협이 실제 어느 정도였던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고, 막부 말기부터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을 침략해 들어가는 것은 따로 경제적인 문제로 조선에서 무엇인가 빼앗아 온다고 하는 것이 주도적인 요인이 아니라, 조선을 지배함으로써 전략적인 또는 세계적인 국제정치 위에서 일본의 우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가 메이지 초기부터 메이지 10년경까지 특히 강했던 것이 아닙니까.

강화도사건 뒤 조선과 개국 교섭에 즈음하여 당시 주(駐) 러시아공사 에노모토 타케아키(榎本武揚, 1836-1908)는 테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 1832-1893) 외무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이 우리나라에 있어 경제상의 실익은 미소하다고 할지라도 ‘폴리티컬(정치적)’ 및

5) 일본 내에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성공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민작가’로 불리는 시바요타로(司馬遼太郎)의 경우이다.

6) ‘정한론(征韓論)’이란, 1870년대에 일본 메이지정부 내에서 등장한 조선침략론(朝鮮侵略論)을 말한다. 대표적인 정한론자(征韓論者)로는 사이고 타카모리(西郷隆盛)가 있다.

‘스트레티지컬(전략적)’ 상의 필요에 이르러서는 현하 세간에서 칭하는바 권모술수를 차치하고 그 장래에 관한 바 실로 이익이 적지 않을 것임”(『일본외교문서』제 9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이 일본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국 후 실제로 조선으로부터는 쌀과 콩의 곡물류, 거기에 일본의 금본위제(金本位制) 확립상 무시할 수 없는 지금(地金) 수입 등 중요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경제적 이익 추구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주된 목적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일본의 산업 자본에 의한 생산물 수출은 청일전쟁 당시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온존되어온 조선 멸시관과 지배관

질문 일본이 조선으로 침략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동학농민군에 대하여 잔인한 학살을 한다든지, 또는 민비 학살 등, 조선침략 전에 일본 안에서 내전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대단히 폭력적이며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무렵부터 조선 민족에 대한 차별의식이나 편견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나카츠카 차별의식이나 편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에 대한 차별의식이나 편견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때도 그랬습니다만, 조선을 침략할 때가 되면 고대 신공황후에 의한 삼한정벌 신화 등이 종군하는 무사들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에도 시대는 조선통신사의 왕래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 그런 차별의식 등은 복류(伏流; 잠복되어 있는 흐름)로서는 있었어도 표면으로는 그다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막부 말기에서 메이지 시대가 되어 정한론이 등장하게 되면 다시 또 삼한정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메이지 초기 정한론이 일어났을 때는 명확한 정한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메이지문화전집(明治文化全集)』『잡사편(雜史篇)』 속의 「정한평론(征韓評論)」에 실려 있는 타야마 마사나카(田山正中)라는 사람의 주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다섯 가지 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두 번째 논점은 대단히 명쾌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야마(田山)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을 영유함으로써 러시아를 막겠다고 말하는 자가 있겠지만 이 같은 사람은 전쟁의 길을 모르는 자이다. 설사 조선을 일본 세력 아래 두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그 즉시 주위는 전부 적, 사면이 모두 적중이다. 주위가 전부 적 이 되는데도 어찌 더욱 큰 적을 막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 같은 주장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일본 근대사를 통틀어 일본에 의한 조선침략 비판으로써 주목할 만한 의견이라고 일찍부터 주목해 왔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뒤의 역사적 전개를 보면 사태 전개는 대체로 타야마가 지적한 그대로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부 말기부터 정한론이 있습니다만, 메이지 초기에는 아직 정한론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

다. 타야마 뿐만 아니라 요시오카 히로타게(吉岡弘毅)라는 조선에 파견된 외교관으로부터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마키하라 노리오(牧原憲夫), 『메이지 7년의 대논쟁』참조) 또 메이지 10년대 초에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에 대해 그것은 ‘명분도 없고 정의도 없는(無名無義)’ 전쟁이었다는 엄중한 비판이 담긴 문장이 육해군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내외병사신문』사설에조차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청일·러일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사라져 갑니다. ‘한국병합’ 1년 전인 1909년 일본군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에 반대하는 항일 의병투쟁을 철저히 근절하는 작전⁷⁾을 전개합니다만, 그 작전보고서 속에는 “전라남도의 산야를 유린하고 적도(의병)를 남김없이 근절하는 것”이 동시에 “일본 역사상 근본적 명예 회복”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남한폭도대토벌 실시보고』)요컨대 조선의 민족적·자주적 움직임을 근절하는 것이 “신공황후의 삼한정벌”과 “히데요시의 조선정벌”을 “일본 역사상 근본적 명예”로 하는 데로 연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러일전쟁 뒤 국정 교과서 등을 통해서 점점 더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가게 됩니다.

강만길 그 당시 세계사 속에서 서양세력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배 했습니다만, 양자는 동일한 문명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세계를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조선은 동일한 문명권에 속해 있었으며, 수준 차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한 두 나라가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1910년경 조선의 문화 수준으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된 경우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조선 민족의 독립운동이 격렬하게 계속된 것입니다. 이런 독특한 역사에서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된 것은 영국의 인도 지배나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와는 다릅니다. 동일한 문명권의 나라를 강제로 지배했다는 점에서 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지배했던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식민지배라는 것은 어떤 경우 일지라도 가혹한 것입니다만,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는 대단히 가혹했습니다. 영국의 인도,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도 피지배 민족을 동화시켜 민족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정책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는 토지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이름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는 근대 일본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나카츠카 일본 외무성 안에는 지금도 청일전쟁 당시의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 1844-1897)의 동상이 있습니다. 역대 외무대신은 1945년 패전까지만 해도 약 50명 정도 있습니다만,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은 무츠 뿐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945년 이후에 재건된 것입니다만, 원래 동상은 1907년 (메이지 40년) 그가 죽은 뒤 10주년을 기념하여 외무성 정면에 세워졌습니다. 무츠의 동상이 유일하게 일본 외무성 구내에 있다는 것은 근대 일

7) 이 작전은 한국에서는 ‘남한대토벌작전’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본의 성공이야기를 상징하는 심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공이야기인 청일전쟁으로부터 태평양전쟁 패전까지 불과 반세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붕괴하는 성공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일본의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한결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향상된 나라가 반세기도 되지 않아 대(大) 패배를 하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그 같은 대 패배를 하는 되는 데에는 조선을 통째로 지배한 데서 온 모순이 근원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에 그치지 않고 조선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만주로 침략을 확대하고, 그렇게 하자 다시 중국의 항일운동이 격렬해지고, 다시 만리장성에서 남쪽으로 공격해 들어가게 됨으로써 점점 더 침략을 확대해 갑니다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을 식민지하여 성공했던 일본은 그때부터 강력한 민족적인 저항에 직면하고, 그 저항을 다시 군사적으로 억압함으로써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졌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본 국내에서는 1892년 쿠메 쿠니타케(久米邦武, 1839-1931)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경대 교수였던 쿠메는「신도(神道)는 제천(祭天)의 고속(古俗)」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썼는데, 이른바 국체론(國體論)이라든가 신도(神道) 쪽으로부터 맹렬한 공격이 있어 동경대를 압박하고 맙니다만 그 당시에 대체로 황국사관(皇國史觀) 원형 비슷한 것이 생깁니다. 어쨌든 역사적 사실일지라도 국익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도 발표도 해서는 안 된다는 풍토가 생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일본이 조선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사건의 진상은 일본에 거의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청일전쟁 최초의 일본군의 무력행사였던 조선왕궁점령사건도 진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밖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은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진상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진상을 왜곡·은폐함으로써 일본의 대내외 정책을 추진하는 중추적인 정치가나 군인들도 진실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음 단계의 정책을 잘못하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을 일본 국내에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만길 제국주의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놀라는 것은 현재의 일본정부가 일본인들도 옛날의 그런 의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관의 근거가 되었다고 듣고 있는 시바 요타로(司馬遼太郎 1923-1996))의 소설『언덕 위의 구름』을 읽어 보았습니다. 놀란 것은 러일전쟁이 이른바 조국방위전쟁이었다고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청일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당시 청나라는 일본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카츠카 선생님을 비롯하여 일본 학자들도 청일전쟁은 조선침략전쟁이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만, 청일전쟁은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이고, 러일전쟁은 조국방위전쟁이었다는 말입니까? 일본의 역사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일전쟁 뒤 조선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러시

아 문제만을 들어 러시아가 일본까지 침략해 들어오기 때문에 조선을 그 방위선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만, 러시아가 패전하여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러일전쟁 뒤의 시점에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사실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논리입니다.

러시아가 만주를 자신들의 세력 아래 넣고자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조선반도는 일본과 사이의 중립지대로 만들려 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그런 제안을 하려는 것을 일본이 알고 외교관을 미국으로 보내, 만일 러시아가 조선반도 중립안을 제안하더라도 거절하도록 교섭했던 사료가 있습니다. 역사라 하는 것은 물론 사람에 따라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료를 사용할지라도 결론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 모임’⁸⁾의 역사관은 개인의 역사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를 포함하여 어떤 개인이라 할지라도 문명국이라면 앞으로의 세계와 지역을 평화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책임과 의무는 어느 나라 역사가나 학자,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세계시민적인 책임과 의무입니다. 만일 어떤 한 사람의 역사가가 자기의 역사관이라고 해서 평화를 파괴한다든지 침략을 미화하는 역사를 써서 가르치는 것을 그 사람이 속한 사회와 국가가 묵인한다면, 아무리 경제나 교육제도가 발달해 있다고 해도 그런 나라는 문명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카츠카 시바(司馬)는 역사가가 아니라 소설가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엄격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조선왕궁 점령에 관한 부분을 저도 읽었습니다만 아무렇게나 쓰고 있더군요. 물론 동학농민군에 대한 진압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쓰지 않았더군요. 알고 있으면서 쓰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시바씨도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의 농민들이 청일전쟁 기간 중에 일본군에 의해 수만 명이나 학살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전혀 눈길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군은 왕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다시 불법적인 왕국 점령에 대항하고자 봉기한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에 대해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에 관한 외무성 자료 가운데『한국동학당 봉기일건(韓國東學黨蜂起一件)』등 상당한 분량의 원문서(原文書)를 수록한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무성이 공간(公刊)하고 있는 일본 외교문서에서는 아무 것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는 청일전쟁 이래 역사 위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지(明治)는 좋은 시대였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유 속에는 태평양전쟁이 일본인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비참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는 정치가도 군인도 모두 똑똑했다고 하는 시바 씨와 같은 역사관이 극구 찬양되고 있는 것이지요.

8) 정식 명칭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다. 이 ‘만드는 모임’은 현재 일본의 우익단체, 문부과학성, 자민당 등의 지원을 받아 역사과과서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

강만길 일본 역사학계는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을 15년 전쟁이라고 한정하고 있지요. 그 같은 생각은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대단히 동떨어져 있는 견해입니다. 15년 전쟁이라면 이른바 만주사변(滿州事變)⁹⁾부터 시작됩니다. 만주사변이 일어난 것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조선을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침략전쟁은 이미 청일전쟁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카츠카 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¹⁰⁾이 1928년 이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문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강만길 저는 역시 역사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관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조선민족 만큼 유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20세기 들어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민족적 자존심에 대단한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해방 이후 50년간 자성적 사관보다도 규탄적 사관이라 말할 수 있는 역사관이 학계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기 나라가 식민지가 된 원인을 일본의 침략에서만 찾는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해방 이후 50년이 지나 한국사학계 극히 일부에서 식민지가 된 원인은 일본 침략뿐 아니라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성리학 이데올로기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선반도가 식민지가 된 원인은 더욱 더 다양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선 반도는 통일 문제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반도 분단의 근원적 원인은 물론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있으며,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가 없었더라면 1945년 당시 마소 두 나라 군대에 의한 분할 점령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분단은 일본과의 관계에만 한정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조선 반도 분단 원인을 다양하게 보려고 하는 역사인식이 식민지화 원인을 다양하게 보려는 역사인식을 낳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와 같은 한국 사학계의 동향을 받아들여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같은 노력 속에 한일 양국의 역사교육이 서로 균형을 잡아 21세기 동아시아 평화 실현의 인자(因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역사교육이 지금처럼 침략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의 역사교육도 또다시 규탄사관 중심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1세기 동아시아 평화는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나카츠카 저는 15년 전쟁이라는 견해도, 또 쇼와(昭和)는 오욕의 시대였지만 메이지(明治)는 영광의 시대였다고 하는 사고방식도 시바 씨 뿐만 아니라, 만주사변 이후 중국에 대한 침

9) 일본의 중국 동북지방 즉 만주에 대한 침략전쟁. 1931년 9월 18일에 일어났다.

10) 일명 '동경재판(東京裁判)'이라고도 부른다. 1946년 5월부터 1948년 11월까지 연합국 11개국이 일본의 A급 전범 28명을 대상으로 열었던 재판을 말한다.

략을 비판하거나, 전쟁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로부터 통신을 보내고 있던 후지무라 마코토(藤村 信)씨의 『밤과 안개의 인간극-바루 비이 재판 속의 프랑스』(1988년)에는 남경대학살이라든가, 히틀러 독일의 게르니카 공습과 같은 잔혹한 사실은 그때까지의 역사에는 없었던 것이 아니겠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양민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다. 전쟁과 아무런 관련도 갖지 않은 양민이 피해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러일전쟁과 제 1차 세계대전 말기까지는 전쟁 당사자들 속에 양민은 살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기사도 정신의 흔적이라고 할 만한 무언의 룰이 있었다. 이 룰을 파기하고 인민의 대량살상을 전략의 하나로 집어넣는 것은 바로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파시즘에서 시작된다.”

이런 관점이 타당한 것이라면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0년의 중국의화단(義和團) 진압전쟁(일본에서는 북청사변이라고 부릅니다만), 1904년의 러일전쟁은 기사도 정신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러일전쟁 당시 여순(旅順)에서 러시아군이 항복한 뒤, 수사영(水師營)에서 노기(乃木)대장과 스타셀 장군 등 러일 양국군 수뇌의 회견 사진 등에서 「기사도」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후지무라 씨의 저작은 나치에 대항한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의 빛과 그림자를 분석한 명저(名著)인 만큼 청일·러일전쟁에 관한 역사적 사실-특히 일본군이 조선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던가 하는 사실을 모르는-그런 역사적 사실에 눈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일본 쪽에서 역사적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서 문제점을 자각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교과서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츠 무네미츠 등은 틀림없이 수완 좋은 정치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조선에 대해서 공언(公言)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짓도 하고 있습니다. 조선왕궁 점령에 대해서나 동학농민군 진압에 대해서나 조사해보면 전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극히 소수의 역사가 밖에 알지 못하고 있으며, 책으로 써도 별로 읽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욱 문제 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식민지 지배 공적론

질문 식민지 지배가 지배당한 측에 커다란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까만, 일본 안에는 식민지 시대에 인프라를 정비했다든가, 마치 은혜를 베풀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도 식민지 시대에 인프라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한국이 1960년 이후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만?

강만길 식민지 시대를 분석하는 이론은 주로 서양 측 이론으로, 한국과 일본처럼 동일문화권 안에서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된 경우에 대한 분석이론은 아직 없다고 해도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는 식민지가 될 당시 조선의 역사적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시대 35년간 공장이 많이 들어섰다는지, 철도가 많이 부설되었다든지 말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그 양이 조선인이 35년간 스스로 국가를 다스리면서 건설한 양보다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체적인 민족운영이 아닙니다. 만일 일본인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100m의 철도를 부설했는데 조선인이 주체적으로 운영하여 50m밖에 부설하지 못했다 해도 그것은 조선인의 의지와 능력에 바탕하여 조선인을 위해 부설한 철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본다면 조선인이 주체적으로 부설한 쪽이 더 긍정적인 건설입니다.

일제 강점시대에 근대적인 학교가 다수 지어졌다고 말합니다만 그곳에서 배운 학생은 조선인으로서의 주체성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 이른바 황국신민이 되기 위해 배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보지 않고 일제시대에 학교가 얼마나 건설되었는가 라든지, 철도가 얼마나 부설되었는가라는 숫자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 관점이 아닙니다.

역사학적인 관점과 결론은 경제학적인 관점 결론과는 다릅니다. 숫자만을 보면 일제 강점시대를 통해 조선의 경제 성장률은 연 8% 정도였다고 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실제적 의미와 가치, 즉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 의한 성장이었는가, 그 과실은 누구의 것이 되었는가라는 문제는 별개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제 강점시대에 약간의 인프라가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공업시설은 주로 북한에 많았으며, 그것도 한국전쟁 때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나는 평양에 세 차례 갔었습니다만, 한국전쟁 이전의 건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의 건설에 의해 북한의 경제력은 1970년대 전반기까지는 남쪽보다 높았습니다. 남쪽도 마찬가지로 1960년대에 경제가 발달한 것은 한국전쟁 후의 부흥과정에서의 발달이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정치체제의 차이에 관계없이 1960년대에는 이미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조선의 오랜 역사 위에서 본다면 일제 강점시대는 짧은 한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1960년대 이후의 남북한의 경제적 발달은-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일시적으로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만-조선의 오랜 역사적·문화적 소산물이지, 민족사의 운영권을 완전히 타민족에서 박탈당하고, 민족 경제의 경영권을 상실했던 일제 강점시대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질문 반대로 지배했던 일본 쪽도 경제적, 정치적, 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왜곡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1945년 패전 이후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떠신가요?

나카츠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일본의 근대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이 불가

결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같은 비판이 대단히 애매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제일의 근원은 천황의 전쟁책임을 묻지 않았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1945년 패전 이후에 옛 기원절이 부활한다든지, 메이지 백주년 기념사업을 한다든지, 언론계의 경우도 하야시 후사오(林房雄)의 『대동아전쟁과정론』등이 나온 이래 지금의 「만드는 모임」에 이르기까지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학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한다면, 메이지 이후의 서구 지향, 대국 편중의 역사학 연구 자세는 1945년 이후 약간은 변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조선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제가 가르침을 받은 야마베 켄타로(山邊健太郎, 1905-1977)씨의 선구적인 업적이라든지, 조선사연구회의 활동이라든지, 1945년 이전에는 없었던 다양한 새로운 활동·연구도 생겨났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일본 역사학계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수의 영역에 그치고 있습니다. 1945년 이전은 물론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정책에 대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며, 1945년 이후에는 또 식민지를 잃어버려 조선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이야 동경대학이나 여기저기의 대학에 조선사 교수가 있습니다만, 내가 근대일본과의 관계에서 조선사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연구를 시작했을 무렵에는 조선사 관계 강좌가 있었던 곳은 천리대학(千里大學)과 동경도립대학뿐이었습니다.

본래 일본이 1945년 이후 평화국가로서 재생하기 위해서는 이 식민지 문제를 포함한 근대 전체에 대한 총결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바탕하여 역사교육도 제대로 했어야 함에도 그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1945년 이후 역사학에서는 예를 들면 자유민권운동이라든가, 타이쇼(大正) 데모크라시라든가, 일본 내의 민주주의적인 전통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도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유민권운동도 쇠퇴기에 접어들면 조선침략과 대청강경론이 등장하며, 타이쇼 데모크라시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는 천황제 비판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1878-1933) 등 극히 일부 사람은 조선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타이쇼 데모크라시운동 전체로 봐서는 어떠했을까요? 조선 문제에 대한 해명 움직임은 미약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타이쇼 데모크라시 문제와 식민지 문제와의 유기적 관계 등은 역사연구 과제로써 더욱 심화시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가 애매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15년 전쟁(1931~1945)」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사람도 청일·러일전쟁은 잘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타이쇼 데모크라시에 참가하여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제 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군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도 어디까지나 타이완과 조선은 1945년 이후에도 일본 영토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키요사와 키요시(清澤 洌, 1890-1945)의 『암흑일기(暗黒日記)』등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태평양전쟁 말기에 화평공작(和平工作)을 했던 일본 정부의 입장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키요사와 키요시는 군부에 반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조차도 태평양전쟁 말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외교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카드로 삼아 최소한

도로 양보하는 수를 쓰는 것 외에 길이 없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만주와 외국에 대한 주병(駐兵)이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하여 조선과 타이완을 막을 수 있으면 최상이다.”(1944년 12월 10일 일기) 또, 위의 일기보다 앞에서는 “미국의 전후 요구 속에는 조선독립이라고 하는 요구는 있을 수 없지만(조선 합병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라고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1943년 6월 18일 일기)

키요사와 키요시마저 이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1945년 이후에도 반성하는 일 없이 질질 끌다가 1998년에 이르러 오부치(小淵)수상이 어쩔 수 없이 반성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까지 왔습니다만, 다시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어나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근대전체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메이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널리 한국(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시야에 넣고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불러일으킨 역사인식의 토양

강만길 한국에서는 일본이 급격하게 우경화(右傾化)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나카츠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우경화는 갑자기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45년 이후 내내 전쟁, 식민지 지배책임이 미청산된 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다시 또 다른 원인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 붕괴가 일본사회에 끼친 영향, 중국이 새로운 대국이 되가는 것에 대한 불안 등입니다. 작년 저는 한일 문화교류위원회 회의 참석차 일본에 왔습니다만, 당시 어떤 일본 지식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선반도가 통일될 경우 일본과 연합하여 중국을 견제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식인의 발상은 적어도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를 견제한다든가 대립한다고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식인들에게 통일한국과 연합하여 중국을 견제하자는 사고가 있다고 한다면, 통일한국은 오히려 중국에 더 가깝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제국주의시대적인 발상을 하게 된다면 만일 조선반도가 통일되게 되면 -통일이

돼도 일본보다 작으며 중국보다는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만- 일본은 그것을 경계하여 불안감을 가지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화주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선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일본이랑 중국과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이 21세기 동아시아를 위해 바람직한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20세기적인 제국주의적, 냉전주의적 사고로는 조선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바로 일본이 점점 더 우경화되어 가는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 대항해서 EC(유럽공동체)가 EU(유럽연합)이 되었듯이 동아시아도 일본, 통일된

조선반도, 중국 등이 하나의 지역공동체가 되어 사이좋게 평화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을 이끌고 가는 그런 정치적 지도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일본에는 그런 지도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카츠카 오히려 그 반대로 ‘우편향’을 선동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로 청소년들을 가르치게 되면 점점 더 ‘제국주의적인 의식’을 일본 국민들에게 각인 시키게 될 것은 명백합니다.

강만길 수상을 비롯하여 오늘날의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거의 전쟁을 경험 하지 못했지요. 일본과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익을 먼저 추구한 결과, 정치는 여전히 우경화된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을 위해서도 동아시아 전체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일본은 근대에 들어와 탈아론적 정책을 취했습니다만, 21세기에는 동아시아 국가로 되돌아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만을 일방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는데,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가상적으로 삼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자연히 대륙세력과 대립하게 되겠지요.

일본과 미국이 후원하여 타이완을 독립시키려 한다면 21세기 동아시아는 미국과 일본, 타이완이 한 편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이 되어 두 개의 큰 세력이 대립하는 구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속에서 조선반도가 어떻게 통일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럴 때 조선반도는 대륙세력에도 해양세력에도 치우치지 않는,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의 일부로써 통일되는 것이 이 지역 전체의 평화에 공헌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동아시아 역사를 회고해 본다면 21세기 이 지역 평화의 열쇠의 중요한 부분은 일본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21세기 어느 시기까지 세계 초강대국으로 존립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일 미국이 힘을 잃어가게 된다면 동아시아 국가로 귀환하지 않았던 일본은 완전히 고립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점까지 생각하는 일본의 정치력이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나카츠카 말씀하신 그대로 일본이 미국에게만 밀착하게 되어버리면 일본 독자적인 외교선택의 폭은 정말 없어지고 맙니다. 미국이 힘을 잃지 않아도 태도를 바꾸면 일본이 갈 곳은 이제 없어지고 맙니다. 이 정도의 사실은 따로 외교통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을 터인데도 도무지 정치의 중심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서문제만 해도 그것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고이즈미(小泉) 수상 자신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같은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만길 물론 일본은 동아시아국가라고도 할 수 있고 환태평양국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선택 기준을 대립보다 평화공존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초강대국 미국을 지지하고 있는 나라는 동양에서는 일본, 유럽에서는 영국입니다. 이 두 나라 모두 대륙과의 관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쪽이 밀접합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일본이 현재 상태로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바뀝니다. 21세기에 내내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는 가능한 한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20세기와는 다른 21세기 일본의 향방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나카츠카 근대의 아시아와 일본과의 관계를 일본인이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메이지(明治)는 좋은 시대였지만 쇼와(昭和)는 나쁜 시대였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태평양전쟁 때는 일본이 영국 및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하는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반성한다 해도 영국, 미국과 사이 좋게만 해 두면 일본은 문제없다고 하는 사고가 되고 맙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한편으로는 아시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는 종래의 역사인식과 하나입니다. 이런 의식을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라도 역사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조선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질문 근대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멸시와 탈아론, 또는 대국 편중의 사고방식은 전후(戰後; 1945년 패전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이 같은 발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히 일본 측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카츠카 말이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인이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이 아시아에서 저질렀던 일과 태평양전쟁 패배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점을 올바르게 생각해서 청산해야 할 것은 단호히 청산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일 것입니다. 일본인의 역사인식은 긴 세월을 걸쳐 은폐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였으며, 그 같은 내용이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위험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는 정력적으로 연구를 해서 진실을 드러내고, 그 드러난 진실을 역사교육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역사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착실한 작업을 거듭하고 또 거듭하는 장기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강만길 고(故) 야스에 요스케(安江良介) 전(前) 이와나미 서점 사장과 본지에서의 대담(1996년 1월호)에서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일반론으로 말하면 세계문명국의 기성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을 평화주의자로 기를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똑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무를 세계시민적 의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유럽과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입니다. 유럽이 식민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했든지, 유럽의 침략을 방위하기 위해 우리들이 아시아를 지배했다든지, 그런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가지고 타민족을 괴롭힌 나라의 국민으로써 마땅히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일이 미래의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을 침략주의자가 아닌 평화주의자로 기르기 위해서는 과거에 침략했던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선진국이지만, 평화를 위해 세계 문명국으로서의 시민적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이제부터는 아무리 경제가 발달해도 선진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카츠카 저는 최근(2001년 5월 31일-6월 3일) 한국 전주시에 가서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학술대회를 조직하여 운영의 중책을 맡은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물론 역사학자도 있었습니다만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선생, 시인, 또 자원봉사자 가운데는 시민운동의 리더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에 대해서도 1982년의 심각한 외교문제가 되었던 때와 비교하여 “우리들은 대단히 냉정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으며, “우리들 자신,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자행했던 만행 등에 대해서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저질렀던 일, 한국의 약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21세기를 전망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대단히 냉정하면서도 자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학술대회의 주도 및 세련된 운영 모습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40대 중반의 어떤 역사학자는 ‘광주사건’(광주는 한국 전라남도 도청소재지, 1980년 5월에 전두환에 의한 대학살사건에 있었다)¹¹⁾ 당시 대학을 나와 군대에 입대해서 육군 중위였습니다. 그는 ‘광주사건’에 직면하여 “이런 만행을 자행하고서는 한국이란 나라는 도저히 존립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서, 제대 후에 곧바로 노동자를 위한 야학교를 개설하는 한편, 한국 전 지역을 10년에 걸쳐 동학농민군 유적을 답사하는 동학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 한국 역사학계 운영에 임하기도 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 이벤트의 기획자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족주의적인, 어느 쪽인가 하면 ‘우익 내셔널리스트’에 가까운 역사 연구자들과도 교류를 한 적이 있었습니

11) 1980년 5월에 일어난 ‘광주민중항쟁’을 가리킨다.

다만,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우익 내셔널리스트’들과는 전혀 다른 연구자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장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한국사회와 역사 속에 21세기 세계사에 통할 수 있는 어떤 변혁의 역사적 조건이 있는가를 생각한 끝에 동학농민운동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침략한 측이기 때문에 침략한 측의 문제로서 현재 우리들 자신의 사고방식까지 포함해서 어떤 모순을 안고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더욱 철저히 분석하지 않으면 일본인 자신이 변하는 일은 좀처럼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역사교육 분야에서 근대사는 전통적으로 경시되어 왔습니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침략문제는 제대로 교육되지 않고 있으며 조선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가르치지 않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일 한일 공통의 역사교과서를 만든다고 한다면 일본 측이든 한국 측이든 최소한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젊은이들이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책이 나올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아시아를 비롯하여 한국에 대해서도 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편견만은 지니고 있습니다.

강만길 모르기 때문에 편견을 갖는 것입니다. 6,7년 전이라고 기억합니다만 일본에서 국제 학술회의가 있어서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학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19세기 말기 이후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교육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두 자국에 유리하게 써서 가르치고 있다.(웃음)

청일전쟁만 보더라도 동일한 하나의 전쟁에 대해 일본과 중국과 한국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 러일전쟁을 봐도 러시아를 포함한 네 나라의 견해가 모두 다르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역사교육을 받은 각국의 학생들이 앞으로 사이 좋게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네 나라의 역사가들이 21세기 동아시아 평화를 목표로 내건 한 권짜리 동아시아근대사를 공동으로 집필하고, 그것을 다시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출간해서 젊은이들에게 읽히도록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의 제안은 상당히 어려운 제안이었는지 그 뒤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카츠카 역사인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독일처럼 정치적으로 과거의 침략의 역사를 단호하게 동시에 역사적인 자료를 널리 공개하여 누구든지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책을 일본정부의 시책으로써 긴급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정부 시책 시행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역사인식의 약점을 이 사람 저 사람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로서 역사적인 사실을 몸에 익히는 노력을 각자가 처한 곳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역사가는 역사가로서 일반국민의 역사인식을 평화주의 방향으로 향하도록 만들며, 그런 국민들에게 책임을 갖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지 않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 차원의 상호교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시민 차원에서 상호인식을 심화시키고 역사인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서로 왕래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대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이번 역사교과서문제에서 한국의 충남 서산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텐리(千里)시가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텐리시의 청소년들은 서산시 중학생들이 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10년에 걸쳐 쌓아 올려놓은 자매도시 교류를 소중히 하면서 계속해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텐리시의 교육장의 말(『나라신문』2001년 7월15일자)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 질문: 세카이 편집부 오카모토 아츠시

- 번역: 박맹수(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 본문 괄호 안의 해설은 원문에 있는 내용이며, 각주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번역자가 붙였다.

※ 나카츠카 아키라 (中塚 明) 교수 약력

1929년생. 교토대학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63년부터 1993년까지 나라여자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1960년대부터 청일전쟁 연구를 계기로 지금까지 근대 한일관계사 연구에 천착해온 지한파(知韓派) 학자이자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에 대하여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해온 일본의 양심을 대표하는 역사학자의 한 사람이다. 2001년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때 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 운동을 위한 호소문을 앞장서 발표하였고, 2001년 5월 전주에서 개최된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중·일 3개국 학자들을 대표하여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일본학술회의 회원, 나라현 역사교육자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